

# 이 가을엔 시를 읽자

김재홍

경희대 교수 · 국문학

“남쪽에선/과수원의 능금이 익는 냄새/서쪽에선 노을이 타는 내음...//산 위엔 마른 풀의 향기/들 가엔 장미들이 시드는 향기...//당신에겐 떠나는 향기/내게는 눈물과 같은 숲의 향기//모든 육체는 가고 말아도/풍성한 향기의 이름으로 남는/傷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여/높고 깊은 하늘과 같은 것들이여...”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어느 새 추석도 지나가고 이제 곧 시월, 그리고 보니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생각해 보면 참 올 한해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 왔는가? 연초부터 한보사건이 터져 온 나라가 별집 쭉쳐놓은 듯하더니 무슨 무슨 망명사건, 피습사건, 급기야는 비행기추락참사, 그리고 끝내는 유괴사건까지 일어나고, 무슨 무슨 대란설이니 하여 뒤숭숭하기만 하다. 과연 우리의 삶이, 사회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사람의 일은 이리도 소란하기만 한데, 지난 계절은 참으로 위대하기만 하였다. 한여름 매미 울음 소리가 여름 불멸을 달구는 듯싶지만 했는데, 어느새 온 천지엔 생명이 무르익어 온 들녘 천지에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것이다. 대지의 범칙, 대자연의 숨결은 어김없이 초록 들판을 황금들녘으로 바꾸어 놓고, 나무마다 풀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게 하고 있다. 그야말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야말로 무명의 성자(聖者)들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보니 문득 “처음으로 내어다 놓은 숨이불/새로 바른 하얀 미닫이/얽전하게 타 내리는 촛불 앞에/캐묵은 당 시집을 대해 앉는다”라는 어느 노시인의 시가 한편 생각난다. 그렇다! 우리 지난 한해, 지난 한 여름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시달리고 밖으로만 시선이 쏠려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진면목은 어디로 가고, 나의 주인공마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형국이다. 마치 허깨비처럼 기계인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어찌 우리의 삶이 세상사에만 매달려, 대권주자들의 동정에만 끄달리며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렇다! 이 가을에 우리는 “산모퉁이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잃어버린 나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보아야 한다. 또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도하며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소리”를 맑게 들어야만 하리라. 아니면 “하늘이 이 세상을 내밀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젠가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부분)이라고 하니, 그러한 많은 사랑, 밝은 슬픔에 잠겨서 가난하지만 어질게 살아가려는 이웃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좋은 시라고 권하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영혼의 꽃이자 열매가 아니겠는가. 비록 현실적인 대가나 보상성이 없는 것이지만, 또 그러기에 하이데거의 말대로 인간의 영위 중에서 가장 죄 없는 일이고 정복(淨福)이라고 할 것이다. 가장 높고 깊은 정신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이기에 시는 우리 영혼을 맑고 깊게 고양시켜 줄 것이 분명하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는 차 한잔 값이면 구할 수 있는 시집 한권 사두고 가랑잎 지는 숲으로 가보자. 숲으로 가서 우리 마음을 고운 시의 단풍빛으로 물들여가보면 세상 또한 참으로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

특집/우리 말, 우리 글	2	통신시대, 위기 맞은 우리 말과 글 - 최용기 어법에 맞지 않는 우리 말들 범람
	4	새시대 준비하는 우리말 사전들
	5	외국인이 경험한 한국어사전 - 마리즈 부르텡
	6	국어학 연구저술의 어제와 오늘 국어사 · 방언학 · 음운론 등 각론 연구 활기
초점	8	출판의 '걸어온 길' 보여주는 도서목록들 출판사 도서목록 다양화 · 전문화 추세
논단	10	책은 유통면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 - 김성재 한기호님의 반론을 반박함
확대 서평	12	구중서·최원식 엮음 《한국근대문학 연구》 - 우찬재
	13	더글러스 켈너 지음 《미디어 문화》 - 원용진
화제의 출간	14	현실감 넘치는 세계전쟁의 시나리오
나의 학문과 책읽기	16	초보자가 덤벼들었던 '훈민정음 운해' 주석 - 강신향
베스트셀러 다시보기	17	《바이블 코드》를 읽고 - 정진홍
주제가 있는 책읽기	18	사회변화 이끄는 정보화와 사이버 스페이스 - 백육인
책갈피 산책	19	이상옥 산문집 《두견이와 소쩍새》 - 이태동
해외 출판사 탐방	20	프랑스 문학전문출판사 '그라세' - 박재환
인터넷 출판형태	21	전세계 출판인이 보는 《퍼블리셔스 위클리》 홈페이지 - 김두환
출판계 소모임	22	출판계의 준령 '출판인 산악회'
책이 있는 풍경을 찾아서	23	성남시 분당 '백궁'역의 간이도서관
서평	24	남경희 《이성과 정치존재론》 - 노희천 남기영 외 《인간이란 무엇인가》 - 김석수
	25	김방옥 《열린 연극의 미학》 - 김미혜
	26	기틴스 《가족은 없다》 - 조옥라
		윌리엄스 《진화의 미스터리》 - 장희익
	27	마백영 외 《중외의학문화교류사》 - 황상익
이 책 그 사람	28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 퍼낸 김준호씨 《우리집 행복지수 높이기》 퍼낸 정 송씨
	29	《모델》 퍼낸 이경남씨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어요》 퍼낸 장영철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㉞